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4 권 제 6 호, (2006. 12), pp.945~955

여성의 헤어 스타일과 헤어 컬러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희† · 송 원 영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The Effect of Women's Hair Style and Hair Color on Impression Formation

Myoung-Hee Lee† and Won-Young S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6. 8. 1. 접수 : 2006. 11.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hair style and hair color on women's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design was 2×3×3 (hair wave×hair length×hair color) factorial design by 3 independent variables. Subjects were 343 women in Seoul.

Four factors were derived to account for the dimensions of impression formation. These were neatness, sociability, attractiveness, and femininity. The straight hairs were evaluated neater than the permed hairs, and the permed hairs were evaluated higher in sociability and attractiveness. The short hairs were perceived highest in sociability, and the long hairs were perceived high in attractiveness and femininity. The black hairs were perceived highest in neatness, the bright brown were perceived high in sociability and attractiveness, and dark brown were perceived high in femininity. Attractiveness ha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depending on three independent variables: hair wave, lengths, and colors. Long black straight hair was perceived most attractive, and midium length black straight hair was least attractive. The light brown permed hairs were perceived high in attractiveness regardless of hair length. In the case of straight hair, the longer the hair length was, the younger the object women were perceived. The women with the long permed hair were perceived older than the women with short and midium length permed hair.

Key words: hair style (헤어 스타일), permed hair(퍼머 머리), straight hair(직모), hair length (헤어 길이), hair color (헤어 컬러), impression formation (인상 형성).

Ⅰ. 서 론

현대에는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새로운 패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에 대한 정보는 여성의 미적 욕구를 충

"이 논문은 200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mhlee@sungshin.ac.kr

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미에 대한 인식이 신체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가운데 신체 외모 변인 중 하나인 헤어 스타일은 아름다움과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여성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을 선택하는데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헤어 스타일은 퍼머, 커팅, 염색 등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변화가 가능하며[1] 얼굴 매력과 패션 완성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외모와 관련된 인상 형성 연구는 주로 의복, 의복 착용자, 상황, 지각자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최근에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헤어 관련 인상 형성 연구는 대부분 헤어의 스타일과 착용자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2]. 헤어 컬러에 관한 연구와 헤어 스타일 및 헤어 컬러의 두 변인에 따른 상호 작용 효과 연구는 미비한 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헤어 스타일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퍼머 여부, 헤어 길이와 함께 헤어 컬러를 동시에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가 여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지각 대상자의 헤어 스타일 및 헤어 컬러에 따라 연령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헤어 스타일과 헤어 컬러가 여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각 개인이 바람직한 외모를 지니는데 필요한 단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 연구 고찰

1. 헤어 스타일과 인상 형성

인상 형성의 과정에서 헤어 스타일은 지각 대상자가 지각자에게 제공하는 외적 단서 중 하나로 입, 눈, 얼굴 구조 다음으로 얼굴 매력에 영향을 준다[3]. 또한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의복이 53.33%, 헤어 스타일이 46.67%인데, 인체의 비율로 볼 때 헤어 스타일은 의복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적으므로 인체 전체에서 헤어 스타일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4].

Peterson과 Curran[5]은 남성 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짧은 머리의 남성은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인 반면,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다 진보적이어서 남성의 머리 길이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단서로 보여졌다.

도주연[6]은 헤어 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연구에서 직모는 수수한, 자연스러운, 청순한 이미지를, 컬은 촌스러운, 성숙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머리 길이에 따라서는 짧은 머리는 현대적인, 적극적인, 개성적인, 발랄한, 단순한 이미지, 중간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 머리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따뜻한, 점잖은 이미지를 보였다. 김복숙[7]은 헤어 스타일 유형을 고전형, 낭만형, 자연형, 대담형으로 분류하였고, 헤어 스타일

1) L. Terry and J. S. Davis,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2 (1976), p. 918.

2) 이영미, 서미아,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 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1998), pp. 13-25; 김복숙,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도주연,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임남영, 강승희, "의복 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2003), pp. 340-351; 정해선, 강경자, "헤어스타일 · 길이와 모자 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2004), pp. 460-471.

3) R. L. Terry and J. S. Davis, *Op. cit.*, p. 918.

4) 윤소영, *Op. cit.*, pp. 51-59.

5) D. Peterson and J. P. Curran,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Vol. 93 No. 2 (1976), pp. 331-339.

6) 도주연, *Op. cit.*, pp. 65-67.

인상 요인으로 성숙·현시성, 호오성, 용모성, 독특성의 4개 요인을 추출하여 연구하였는데 낭만형은 독특성 요인에서, 자연형은 성숙·현시성 요인에서, 대담형은 용모성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윤소영[8]은 헤어 스타일의 인상 형성 요인을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개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호의성은 긴 머리, 커트머리, 단발머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세련성은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가 모두 긴 머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품위성은 긴 머리 스타일이 가장 높았고, 단발머리 스타일이 가장 낮았다. 개성 요인은 커트머리와 단발머리가 긴 머리에 비해 더 높았다. 정해선[9]의 연구에서는 헤어 길이가 긴 경우 스트레이트일 때 가장 세련되고 보기 좋으며 매력적으로 지각되었고, 단발이면서 스트레이트인 경우가 가장 정숙하며 단정한 것으로, 단발이면서 웨이브 일 때 가장 정숙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영미, 서미아[10]는 네크라인과 헤어 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긴 웨이브 머리는 라운드와 브이 네크라인에서 개성적,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냈고, 보우트 네크라인에서는 개성적 이미지가 높았고, 단발 웨이브 머리는 라운드 네크라인에서 개성적, 여성적 이미지가 높다고 하였다. 단발 작모는 보우트 네크라인에서 단정한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커트머리는 라운드, 보우트, 스퀘어 네크라인에서 지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브이 네크라인에서는 지적인, 개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임남영, 강승희[11]는 의복 유형과 남성 헤어 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인, 학생 모두 스포츠형의 헤어 스타일이 일반형의 헤어 스타일보다 사교성 요인이 높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학생은 재킷/청바지, 남방/청바지 및 남방/면바지 의복 유형에서 스포츠형 헤어 스타일을 했을 경우 품위가 높게 평가된 반면, 재킷/면바지 차림에서는 일반형의 헤어 스타일일 경우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두발 고정 관념에 관한 한명숙[12]의 연구에서는 남녀 피험자 모두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는 평가에서 매우 짧은 커트를 높게 평가하였고, '여학생답다'에서는 단발 직모와 긴 직모를 높게 평가하였다. '여선생님답다'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짧은 커트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짧은 커트, 단발 직모, 긴 직모, 긴 웨이브, 업스타일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외모 변인 중 하나인 헤어 스타일은 인상 평가 과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직모는 수수하며 청순한 이미지로, 컬은 성숙한 이미지로, 짧은 머리는 개성적이며 발랄한 이미지로, 긴 머리는 여성적이고 품위있는 이미지로 지각됨으로써 헤어 스타일에 따른 인상 형성에 차이가 있었다.

2. 헤어 컬러와 인상 형성

색채는 자신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13]. 따라서 헤어에서 표현되는 색채는 모발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헤어 스타일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헤어 컬러에 따른 외모 이미지는 개성이나 가치관, 지위, 직업 등 내면적인 것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내포한다[14].

Mahannah[15]은 빨강 및 파랑의 와복색과 머리색이 의복 착용자의 성격 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음양(Yin-Yang)의 성격 특성 지각은 머리색과 의복색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빨강색 의복에 검은 머리가 조합되었을 때 가장 남성적

7) 김복숙, *Op. cit.*, pp. 119-200.
8) 윤소영, *Op. cit.*, pp. 51-59.
9) 정해선, 강경자, *Op. cit.*, pp. 460-471.
10) 이영미, 서미아, *Op. cit.*, pp. 13-25.
11) 임남영, 강승희, *Op. cit.*, pp. 340-351.
12) 한명숙, "남·여 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 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11호 (2004), pp. 1404-1414.
1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5), p. 11.
14) 유현주, 나영순, "양질의 미용서비스를 위한 모발 색상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권 1호 (2000), pp. 21-37.
15) L. Mahannah,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1968).

이며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Kyle와 Mahler[16]는 회계원 취업 지원자의 능력 판단에 여성의 헤어 컬러와 화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검은 머리 여성이 붉은 색 및 금발 머리보다 높은 급여가 책정되면서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이 색채 화장을 한 여성보다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헤어 컬러와 화장의 상호 작용 효과는 없었다.

한명숙, 하희정[17]의 연구에서는 두발의 색이 검정과 갈색이었을 때 '남자답다'고 평가되었고, 검정색일 경우 더욱 남성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여자답다'고 평가된 두발색은 검정, 갈색, 와인, 퍼플, 레몬, 오렌지색이었으며, 검정색은 양성성을 보였고, 특히 갈색은 여성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갈색을 더 '여자답다'고 인식하였다. 역할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모발 색상으로는 피험자 모두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 검정색을, '여학생답다'와 '여선생님답다'에 검정색과 갈색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18].

헤어 컬러는 염색을 통해서 다양한 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윤지성[19]은 헤어 컬러에 대한 연구에서 갈색이나 붉은색의 헤어 컬러는 진보적이고 매력적이며 화려한 이미지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지각된 반면, 검정색 헤어는 부정적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긴 퍼머 머리와 단발 생머리의 경우, 정장스타일에서는 검정색 컬러보다 갈색 컬러가, 갈색 컬러보다 붉은색 컬러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캐주얼 스타일 차림일 때는 컷 생머리는 검정색, 갈색, 붉은 색으로 변화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김재숙, 류지원[20]은 헤이 길이와 헤어 컬러의 이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노랑색과 붉은색 헤어는 눈에 띄고 화려하여 현시적, 사교적으로, 갈색과 검은 갈색은 역능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요인에서 나타났는데, 헤어 컬러가 갈색과 검은 갈색인 경우 다른 헤어 길이에 비해 긴 머리일 때 더 현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간 짧은 머리의 검은 갈색과 갈색 헤어가 다른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의 조합에 비해 더 역능적으로 평가되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준실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설계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3×3(퍼머 여부×헤어 길이×헤어 컬러)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1.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 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20대 여성의 상반신의 모습으로서 헤어 스타일을 변화시킨 것이다. 모델의 얼굴은 타원형 윤곽이며, 의복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흰색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제작을 위하여 여성 모델의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CAD시스템으로 헤어 스타일을 바꾸었다. 헤어 스타일은 퍼머 여부와 헤어 길이로 변화를 주었으며, 퍼머 여부는 웨이브진 퍼머 머리와 직모를 사용하였다. 헤어 길이는 짧은 머리, 중간 길이(턱밑 1cm 정도), 긴 머리를 택하였다. 헤어 컬러는 6가지 헤어 스타일을 검정, 진갈색, 밝은 갈색으로 변화시켰다. 모델의 배경은 연회색이었으며, 자극물의 크기는 8×9cm였다. 따라서 자극물은 퍼머 여부(2), 헤어 길이(3), 헤어 컬러(3)로 변화를 준, 총 18 종류의 컬러 출력물이었다.

의미미분척도는 선행 연구[21]를 참고로 하여 총 22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자극물과 함께 인상 차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문항과 자극물의 연령

16) D. J. Kyle and H. I. M. Mahler, "The Effects of Hair Color and Cosmetic Use on Perceptions of a Female's Ab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0 (1996), pp. 447-455.

17) 한명숙, 하희정, "남 · 여 대학생의 「~답다」에 대한 성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 두발,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권 5호 (2003), pp. 767-777.

18) 한명숙, *Op. cit.*, pp. 1404-1414.

19) 윤지성, "헤어 컬러(Hair Color)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100-101.

20) 김재숙, 류지원,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권 9/10호 (2004), pp. 1320-1328.

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18~55세 여성 343명이었으며, 1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표집된 피험자는 연령에 의한 할당표집에 의하여 각 자극물에 배치되었으며, 1개의 자극물에 36~42명이 반응하였다. 질문지는 헤어 스타일과 헤어 컬러를 다르게 조합하여 2개의 자극물을 1세트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산출,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따른 인상형성의 요인 분석

인상을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2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4개 요인을 택하였다. 1차 요인 분석에서 문항의 내용이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을 제외하고 2차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지성적인-지성적이지 않은,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품위 있는-품위 없는, 우아한-우아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단정성 요인이라 칭하였고, 요인 2는 적극적인-소극적인, 능동적인-수동적인,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등이 포함되어 사교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섹시한-섹시하지 않은, 아름다운-아름답지 않은, 매력 있는-매력 없는, 세련된-촌스러운 등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 여성적인-남성적인 등이 포함되어 여성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6 이상이고 요인 4까지의 누적변량은 65.27% 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4까지 각각 .85, .87, .75, .66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정성, 매력성, 여성성 요인의 도출

〈표 1〉 헤어 스타일 인상 형성의 요인 분석

요인 1. 단정성	요인 부하량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83
지성적인 - 지성적이지 않은	.82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80
품위 있는 - 품위 없는	.68
청순한 - 청순하지 않은	.62
우아한 - 우아하지 않은	.50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싫어하는	.49
고유치 = 4.06, 전체변량(%) = 21.36	
요인 2. 사교성	요인 부하량
적극적인 - 소극적인	.87
능동적인 - 수동적인	.78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73
개성적인 - 비개성적인	.69
돋보이는 - 돋보이지 않은	.68
화려한 - 수수한	.51
고유치 = 3.70, 전체변량(%) = 19.47	
요인 3. 매력성	요인 부하량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69
아름다운 - 아름답지 않은	.66
매력 있는 - 매력 없는	.57
세련된 - 촌스러운	.51
고유치 = 2.68, 전체변량(%) = 14.08	
요인 4. 여성성	요인 부하량
따뜻한 - 차가운	.84
부드러운 - 딱딱한	.83
여성적인 - 남성적인	.46
고유치 = 1.97, 전체변량(%) = 10.36	

21) 김복숙, *Op. cit.*, pp. 36-40; 김유진, 이경희, "외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7호 (2000). pp. 976-986; 윤소영, *Op. cit.*, pp. 51-59.; 이명희,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2002), pp. 503-514; S. J. Sweat and M. A. Zentner,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1985), pp. 321-336.

은 홍병숙, 정미경[22], 이주현, 조긍호[23], 윤소영[24] 등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사교성과 매력성 요인의 도출은 이향미, 김재숙[2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결정된 4개 요인은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 값은 계속되는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따른 인상 평가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따른 인상 평가의 상호 작용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 효과를 볼 때 퍼머 여부는 단정성, 사교성, 매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여성성 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직모는 퍼머보다 단정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퍼머 머리는 직모보다 사교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즉 여성들에게 퍼머는 직모보다 매력적으로 지각되나 단정성은 낮게 평가됨으로써 헤어 스타일의 인상 형성 중에서 단정성과 매력성이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헤어 길이는 사교성, 매력성, 여성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를 보면 짧은 머리는 사교성이 높았으나 여성성이 가장 낮았고 긴 머리는 중간 길이와 짧은 머리에 비해 매력성과 여성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내용은 직모가 수수하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주며, 긴 머리가 여성적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었다는 것[26]과 긴 머리가 커트 머리보다 호의적이라는 선행 연구[27]와 유사한 결과였다.

헤어 컬러는 단정성, 사교성, 매력성, 여성성의 4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단정성은 검정색이 가장 높았고 밝은 갈색이 가장 낮았으나 사교성은 밝은 갈색이 가장 높았고 검정이 가장 낮았다. 즉 헤어 컬러의 평가에 있어서 단정성과 사교성이 서로 상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밝은 갈색은 매력성은 높았으나 여성성이 낮은 편이었다. 밝은 갈색은 한국인의 본래의 헤어 컬러와는 차이가 있는 색이며 여성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동떨어지는 느낌을 주므로 밝은 갈색머리는 여성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검정색은 사교성과 매력성이 낮았는데 이것은 선행 연구[28]에서 검정색이 매력적인 이미지가 낮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밝은 갈색이 사교성이 높았던 점은 노란색 헤어가 사교성이 높았던 선행 연구[29]를 지지하였다.

R^2에 의해 설명력을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의해 특히 사교성과 단정성에 관한 인상이 크게 영향받는 편이었다.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를 볼 때 각 요인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퍼머 여부와 헤어 길이에 따라 사교성과 매력성은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에서 볼 때 중간 길이의 머리는 짧은 머리와 긴 머리보다 퍼머 여부에 따라 사교성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즉, 중간 길이의 퍼머는 사교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중간 길이의 직모는 사교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중간 길이의 퍼머 머리는 성인 여성들이 많이 행하는 친밀한 느낌을 주는 헤어 스타일이며, 중간 길이의 직모는 여고생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스타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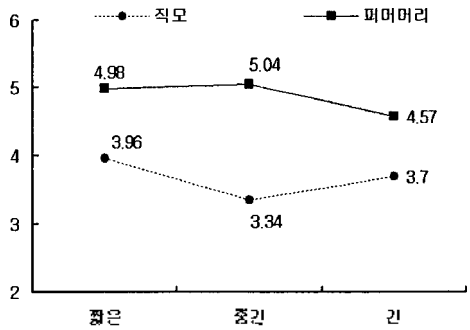
22) 홍병숙, 정미경, "여성 수트의 이미지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권 (1993), pp. 73-82.
23) 이주현, 조긍호, "의상 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1995), pp. 747-764.
24) 윤소영, *Op. cit.*, pp. 51-59.
25) 이향미, 김재숙,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3호 (1998), pp. 312-320.
26) 도주연, *Op. cit.*, pp. 65-67.
27) 윤소영, *Op. cit.*, pp. 51-59.
28) 윤지성, *Op. cit.*, pp. 100-101.
29) 김재숙, 류지원, *Op. cit.*, pp. 1320-1328.

〈표 2〉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따른 인상 평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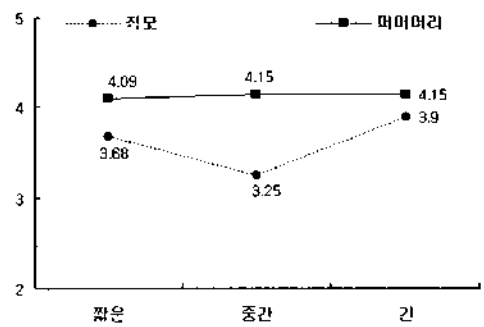
	변량원		*df*	단정성 *F*	사교성 *F*	매력성 *F*	여성성 *F*
3원 변량 분석	퍼머 여부(A)		1	149.43**	250.03**	40.67**	2.96
	헤어 길이(B)		2	2.94	7.99**	5.36**	46.33**
	헤어 컬러(C)		2	51.81**	71.45**	11.40**	4.55*
	A×B		2	2.07	11.23**	5.70**	2.63
	A×C		2	11.09**	13.72**	2.13	2.76
	B×C		4	0.81	0.18	0.07	6.99**
	A×B×C		4	1.46	1.84	3.44**	1.21
평균	변인	속성	N	M	M	M	M
	퍼머 여부	직모	343	4.30	3.68	3.62	4.26
		퍼머 머리	343	3.40	4.87	4.13	4.40
	헤어 길이	짧은	239	3.96	4.46(a)	3.88(ab)	3.90(c)
		중간	227	3.71	4.21(b)	3.71(b)	4.35(b)
		긴	220	3.87	4.13(b)	4.02(a)	4.78(a)
	헤어 컬러	검정	229	4.22(a)	3.81(c)	3.66(b)	4.40(a)
		진갈색	231	3.99(b)	4.13(b)	3.83(b)	4.41(a)
		밝은갈색	226	3.33(c)	4.90(a)	4.13(a)	4.18(b)
	개체간 효과검정	R^2		.314	.412	.133	.181
		F		17.95**	27.50**	6.04**	8.71**

*p<.05, **p<.01.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림 1〉 사교성 평가에 대한 퍼머 여부와 헤어 길이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2〉 매력성 평가에 대한 퍼머 여부와 헤어 길이의 상호 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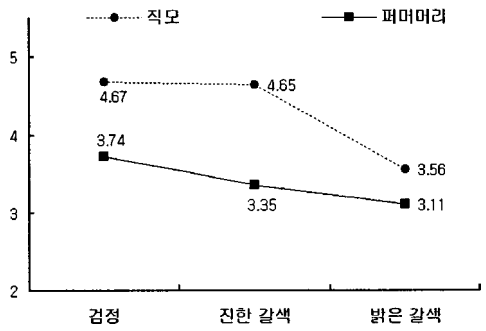
기 때문에 성인 여성이 중간 길이의 직모를 하였을 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간 길이의 직모가 중간 길이의 퍼머보다 사교성이 훨씬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에서 보면 퍼머는 중간 퍼머가 짧은 퍼머 및 긴 퍼머보다 매력성이 낮았고, 직모는 길이에 따른 매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간 길이의 경우 직모가 퍼머보다 매력성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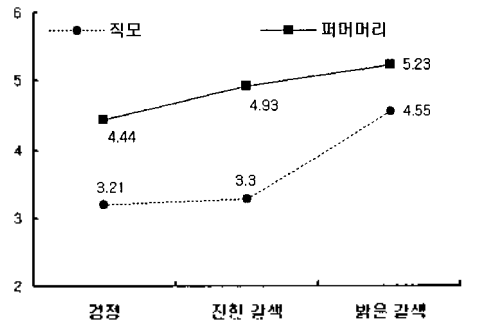
퍼머 여부와 헤어 컬러에 따라 단정성과 사교성은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3, 4〉와 같다.

〈그림 3〉에서 볼 때 진한 갈색머리는 퍼머인 경우보다 직모인 경우에 훨씬 더 단정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밝은 갈색인 경우는 직모 및 퍼머에 따른 차이에 상관없이 두가지 스타일 모두 단정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밝은 갈색이 전통적인 동양인의 헤어 컬러와 매우 다른 색이므로 스타일에 관계없이 모두 단정성이 낮게 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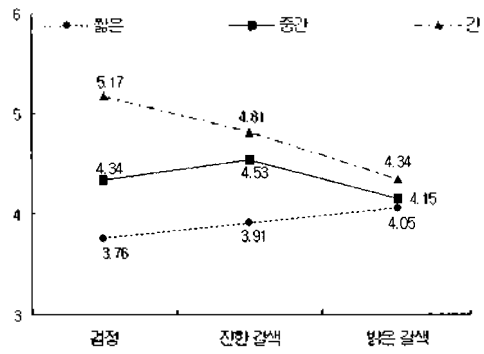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밝은 갈색의 퍼머와 진갈색 퍼머는 사교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검은색 직모와 진갈색 직모는 사교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갈색 퍼머는 서양 여성의 외모를 따르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진보적인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밝은 갈색 퍼머와 진갈색 퍼머가 사교적으로 지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3〉 단정성 평가에 대한 퍼머 여부와 헤어 컬러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4〉 사교성 평가에 대한 퍼머 여부와 헤어 컬러의 상호 작용 효과.



〈그림 5〉 여성성 평가에 대한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의 상호 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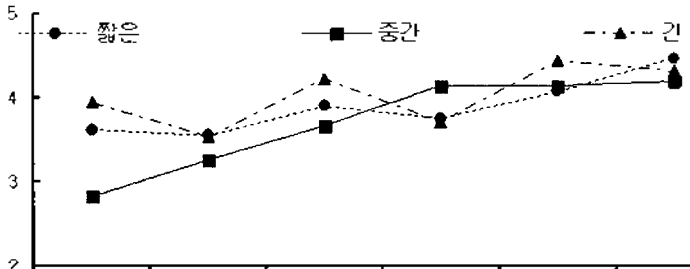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에 따라 여성성은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밝은 갈색은 길이에 따른 여성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검은색 머리는 헤어 길이 따라 여성성 평가가 크게 다르게 지각되었다.

검은색 긴 머리는 여성성이 가장 높았고 검은색 짧은 머리는 여성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검은색과 진갈색의 긴 머리가 비교적 여성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여대생이나 젊은 미혼여성들이 많이 행하는 스타일이므로 검은색 및 진갈색의 긴 머리가 여성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매력성 평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검정색 직모는 길이에 의한 매력성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긴 검정색 직모가 가장 매력성이 높고 중간 길이의 검정색 직모는 매력성이 가장 낮았다. 밝은 갈색 퍼머 머리는 머리길이에 관계없이 매력성이 높은 편이었다. 중간 길이의 검정색 직모는 여고생들이 많이 행하는 스타일이므로 획일적이고 통제된 느낌을 주어 매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밝은 갈색 퍼머는 서구적인 모습이며 진보적인 느낌을 주므로 매력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헤어 스타일 및 헤어 컬러에 대해 전통적인 모습보다 서구적인 외모에 대해 더욱 매력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극물의 연령 평가

자극물에 대한 지각 연령이 헤어 스타일 및 헤어



	검정 직모	진갈색 직모	밝은 갈색 직모	검정 퍼머	진갈색 퍼머	밝은 갈색 퍼머
짧은	3.62	3.56	3.89	3.74	4.06	4.46
중간	2.83	3.26	3.67	4.13	4.12	4.2
긴	3.93	3.54	4.22	3.71	4.43	4.31

〈그림 6〉 매력성 평가에 대한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의 상호 작용 효과.

컬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 효과에서 볼 때 자극물의 연령 평가는 퍼머 여부, 헤어 길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헤어 컬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검정색 헤어 컬러의 평균 연령은 23.37세, 진 갈색 헤어 컬러의 평균 연령은 23.90세, 밝은 갈색은 22.73세로, 밝은 갈색 머리가 연령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젊은층이 헤어 컬러를 좀 더 다양한 색으로 바꾸는 경향이 높으므로 전통적인 색과 동 떨어진 밝은 갈색 머리가 가장 연령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따른 지각된 연령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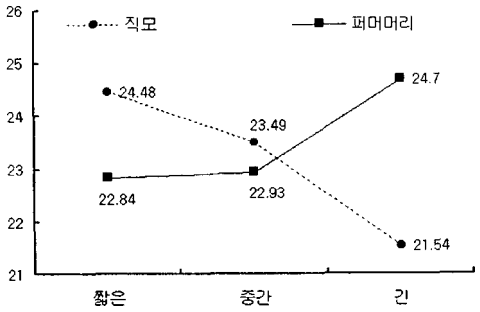
변량원		*df*	지각된 연령 *F*
퍼머 여부(A)		1	.70
헤어 길이(B)		2	.88
헤어 컬러(C)		2	3.27*
A×B		2	15.37**
A×C		2	.77
B×C		4	1.14
A×B×C		4	.34
변인	속성	N	M
퍼머 여부	직모	343	23.21
	퍼머 머리	343	23.46
헤어 길이	짧은	239	23.68
	중간	227	23.20
	긴	220	23.10
헤어 컬러	검정	229	23.37(ab)
	진갈색	231	23.90(a)
	밝은갈색	226	22.73(b)

*p<.05, **p<.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러나 이러한 지각된 연령은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의 3개 변인에 의한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없었다. 두 개 변인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를 볼 때 퍼머 여부와 헤어 컬러, 헤어 길이와 컬러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없었으나 퍼머 여부와 헤어 길이에 의하여서는 p<.01 수준에서 연령 지각의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다. 그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퍼머는 짧은 퍼머 및 중간 길이의 퍼머보다 긴 퍼머가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고, 직모는 머리가 길수록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실제로 긴 직모는 미혼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므로 긴 직모의 여성은 연령이 낮게 지각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짧은 머리는 직모가 연령이 많아 보이고, 긴 머리는 퍼머가 연령이 많아 보임으로써 퍼머 여부의 평가는 젊은 여성과 중년 및 노년 여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실제보다 더 젊어 보이는 연출을 위해서는 생머리의 긴 직모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퍼머 여부와 헤어 길이에 따른 지각된 연령의 상호 작용 효과.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헤어 스타일과 헤어 컬러가 여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며, 지각 대상자의 헤어 스타일 및 헤어 컬러에 따라 연령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 스타일 및 헤어 컬러를 달리한 여성의 인상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의 내용을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이 도출되어 단정성, 사교성, 매력성, 여성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퍼머 여부, 헤어 길이, 헤어 컬러에 따른 인상 형성 차원에 대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모는 퍼머보다 단정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퍼머는 직모보다 사교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 길이는 사교성, 매력성, 여성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사교성은 짧은 머리가 가장 높았고, 매력성과 여성성은 긴 머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 컬러 중에서 검정색은 단정성이 높았고, 밝은 갈색은 사교성과 매력성이 높았으며, 진갈색과 검정색은 여성성이 높았다.

상호 작용 효과를 볼 때, 중간 길이의 경우, 직모가 퍼머보다 매력성과 사교성이 훨씬 더 낮았다. 진갈색의 경우 직모가 퍼머보다 단정성과 사교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검정색 머리는 헤어 길이에 따라 여성성 평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검정색 긴 머리는 가장 여성적이며, 검정색 짧은 머리는 여성성이 가장 낮았고, 밝은 갈색은 길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검정색 직모는 길이에 의한 매력성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긴 검정색 직모가 가장 매력성이 높았고 중간 길이의 검정색 직모는 매력성이 가장 낮았다. 밝은 갈색 퍼머 머리는 머리길이에 관계없이 매력성이 높은 편이었다.

셋째, 자극물의 연령 평가는 짧은 퍼머 및 중간 길이의 퍼머보다 긴 퍼머가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고, 직모는 머리가 길수록 연령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긴 머리, 퍼머 머리, 밝은 갈색 머리는 매력성이 높은 편이며 중간 길이의 검정색 직모는 가장 매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교성과 단정성에 관한 인상이 헤어 스타일에 크게 영향받았으며, 헤어 스타일과 헤어 컬러는 여성의 이미지 형성과 연령 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각 대상자의 고유한 얼굴 이미지와 피부색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사진자극물의 평가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지각자가 성인 여성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헤어 관련 변인 외에 얼굴 매력에 영향을 주는 피부색, 화장이나 안경, 액세서리 착용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변화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참고문헌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김복숙 (1999). "여성 헤어 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진, 이경희 (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7호.

김재숙, 류지원 (2004).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권 9/10호.

도주연 (1991). "헤어 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주, 나영순 (2000). "양질의 미용서비스를 위한 모발 색상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

지 6권 1호.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지성 (2001). "헤어 컬러(Hair Color)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이영미, 서미아 (1998). "네크라인과 헤어 스타일이 얼굴 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이주현, 조금호 (1995). "의상 디자인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외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3호.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 유형과 헤어 스타일이 남성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 스타일·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한명숙 (2004). "남·여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 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11호.

한명숙, 하희정 (2003). "남·여 대학생의 「~답다」에 대한 성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 두발,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권 5호.

홍병숙, 정미경 (1993). "여성 수트의 이미지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권.

Kyle, D. J. and H. I. M. Mahler (1996). "The Effects of Hair Color and Cosmetic Use on Perceptions of a Female's Ab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0.

Mahannah, L. (1968).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Peterson, D. and J. P. Curran (1976).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Vol. 93 No. 2.

Sweat, S. J. and M. A. Zentner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Terry, R. L. and J. S. Davis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2.